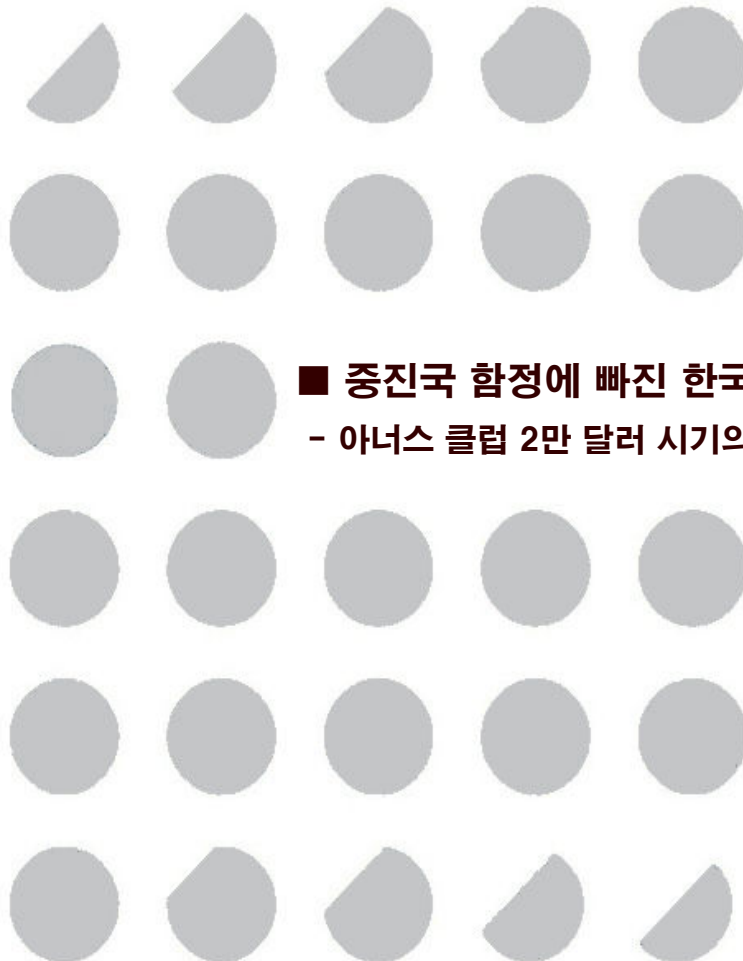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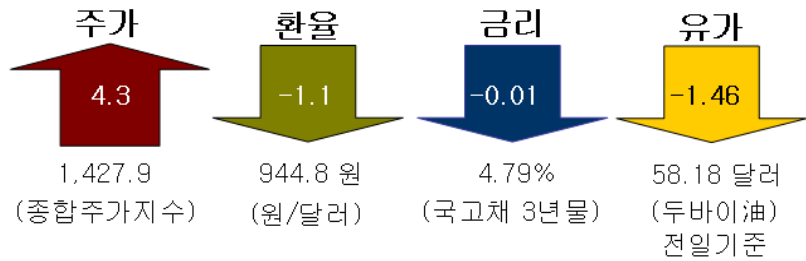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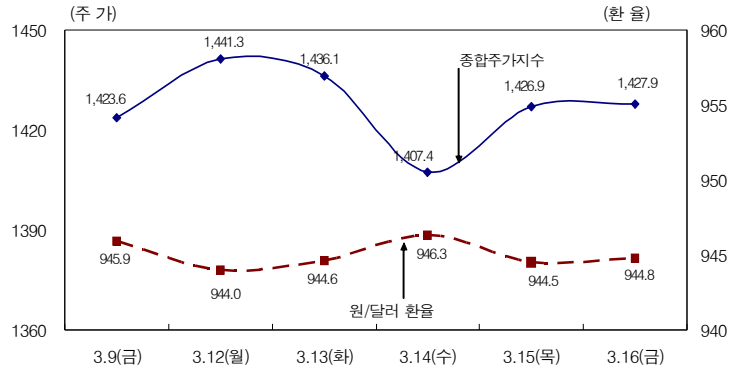
# 韓國經濟週評



■ **중진국 함정에 빠진 한국 경제**  
- 아너스 클럽 2만 달러 시기의 비교 분석과 정책과제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3.9~3.16)**



**차 례**

<b>주요 경제 현안</b>	.....	<b>1</b>
<input type="checkbox"/> 중진국 함정에 빠진 한국 경제	- 아너스 클럽 2만 달러 시기의 비교 분석과 정책과제	1
<b>주간 경제 동향</b>	.....	<b>19</b>
<input type="checkbox"/> 실물 부문 :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세 가속	.....	19
<input type="checkbox"/> 금융 부문 :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정세	.....	20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3669-4121, swhan@hri.co.kr)  
 거시경제실 : 주     원 연구위원 (3669-4030, juwon@hri.co.kr)

## Executive Summary

### □ 중진국 함정에 빠진 한국 경제

- 아너스 클럽 2만 달러 시기의 비교 분석과 정책과제

#### 1. 한국 경제의 현황

한국 경제는 수출주도의 경제발전 전략으로 지난 1990년대까지 세계 경제보다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도 1970년 세계 110위(한은 통계치 기준 256달러)에서 2004년 47위(14,206달러)로 순위가 급등하였다. 2006년에는 국민소득이 18,372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올해에는 2만 달러를 상회하거나 근접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반드시 선진국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90년대까지는 2만 달러가 선진국을 구분하는 잣대로 통용되었으나, 지금은 선진국들도 성장을 지속하여 국민소득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또한, 1980년대말 이후로 OECD가 중진국에도 문호를 개방하였으므로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이라고 하더라도 선진국이라고 말하기도 곤란하다.

UN의 정의에 따르면, 선진국은 보편적으로 일정 수준의 1인당 GDP(GNI)를 충족하는 국가들이다. 이에 더하여 기대수명, 문맹률, 교육, 생활수준, 산업 구조, 소득 균형성 정도를 보조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분석의 단순화를 위하여 1인당 국민소득을 선진국의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선진국 구분의 잣대를 약 3만 달러 정도로 판단된다.(OECD 회원국의 2004년 평균 국민소득 29,936달러) 이 수치는 공교롭게도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아너스 클럽(Honor's Club, 2004년 현재 19개국)을 통칭하는 수치와 동일하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는 비록 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중진국 대열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 2. 아너스 클럽 국가들의 2만 달러대 경제 성장 분석

(분석의 목적 및 방법) 따라서 2만 달러 대로 진입하는 이 시점에서 한국 경제의 경제 발전 모델이 어떠한 형태를 가져야 하는지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본 분석에서의 선진국의 개념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국가인 아너스 클럽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아너스 클럽 국가들을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강소국(1천만명 이하), 강중국(1천만~5천만), 강대국(5천만명 이상)의 세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이후 이들 국가들의 2만 달러대 경제 성장 속도와 성장 구조를 분석하고, 현재 한국 경제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선진국들의 2만 달러대 경제 성장 속도)** 분석의 결과 현재 아너스 클럽 국가들이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진입한 이후 3만 달러를 달성하는 데에는 평균 10.8년의 기간이 걸렸다. 그룹별로는 강소국은 평균 3.9%로 성장하여 9.7년이 걸렸다. 또한 강중국은(캐나다, 호주 등) 2.9%로 성장하여 12.6년, 강대국은(일본, 미국 등) 2.6%로 성장하여 11.0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들의 2만 달러대 성장 구조)** 한편 소비, 투자, 수출의 수요 부문별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국민 소득 2만 달러대의 성장 패턴은 인구 규모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우선 강소국들의 경제 성장은 주로 수출 부문에 의해 견인되었다. 강중국들은 내수와 수출의 동반 성장이 특징이고, 강대국들은 소비 비중이 높고, 투자 증가율이 높은 내수 위주의 성장세를 보였다.

### 3. 한국과 아너스 클럽 국가와의 경제 구조 비교

**(경제 성장 속도 비교)** 위의 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한국 경제는 외형상 경제 성장 속도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진입 직전인 우리나라의 2003~06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3%로 아너스 클럽 국가들의 국민소득 2만 달러 진입 직전 5년 동안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3.8%보다 0.5%p 높다. 그러나 규모의 효과로 한국의 국민소득 수준은 아너스 클럽과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 아너스 클럽과의 1인당 국민소득 차이는 1998년 20,415달러에서 2004년에는 25,396달러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아너스 클럽	강소국	강중국	강대국
2만~3만달러 기간	10.8년	9.7년	12.6년	11.0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3.3% (2만 달러 직전 5년은 3.8%)	3.9%	2.9%	2.6%
주력 성장 부문	-	수출	내수 및 수출	내수

**(경제 성장 구조 비교)** 경제 성장 구조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인구 규모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강대국들과 비교할 경우, 우선 과도한 수출의존도를 들 수 있다. 한국의 2006년 기준 재화와 서비스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8%로 강대국들의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점의 비중인 15.4% (3만 달러 시점 비중 23.2%)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의 2006년 총소비 비중은 61.8%로 강대국들의 비중 약 80% 내외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최근 4년여 동안의 총투자 증가율이 3.1%에 그친 반면, 강대국들의 2만 달러대 시기의 증가율은 4%대에 이르고 있다.

		한국 (2006년)	아너스클럽 (2만 달러)	강대국 (2만달러)
대 GDP 비중	재화와서비스수출	57.8%	34.5%	15.4%
	총소비	61.8%	76.9%	80.6%
	총자본형성	28.2%	23.6%	20.2%
		한국 (2003~06년)	아너스클럽 (2만 달러대)	강대국 (2만 달러대)
연평균 증가율	재화와서비스수출	14.0%	6.0%	6.6%
	총소비	2.1%	2.7%	2.7%
	총자본형성	3.1%	4.0%	4.2%

#### 4. 시사점과 정책 과제

**(시사점)**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우리 경제는 현재 중진국 지위가 고착화되는 “중진국 함정”에 빠져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향후 현 잠재성장률 수준인 4% 내외의 경제 성장이 지속될 경우 10년 후인 2017년까지 한국이 아너스 클럽 국가로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그 기간 동안 한국 경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너스 클럽 국가들도 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환율 변동과 성장률을 감안한다면, 한국 경제가 2017년까지 아너스 클럽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을 6%대 이상으로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현 잠재성장률 수준인 4%와의 약 2%p의 차이는 강대국 모델을 따라가야 할 필요성을 고려해 볼 때 내수 부문 확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경제가 중진국 함정에서 탈출하여 선진국 진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경기 안정이 요구되며, 중장기적으로는 경제발전 모델의 전환을 통한 **내수 부문의 집중적 육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거시적 측면에서는 투자 활성화가 고용 창출과 소비 증진으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목적으로 두어야 한다. 산업 정책적 측면에서는 서비스, 벤처 산업과 같은 **고용 효과가 큰 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단기 대응 방안)** 단기적으로는 경제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의 과도한 급락을 방지해야 한다. 경기 침체의 골이 깊을수록 회복을 위한 비용과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경기의 과도한 침체를 방지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 투자 규제 완화,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과 같은 기업 투자 활성화노력이 시급하다. 또한 부동산 경기 연착륙, 가계 부채 문제 해소 등으로 가계의 건전성도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중장기 정책 과제)** 중장기적으로는 **첫째 지속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성장 산업을 조기에 발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시장 형성 초기 단계에 있거나 잠재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IT 이후의 신산업 부문에 대해서, 집중적인 R&D 투자와 상업화 전략을 통해 미래 국가 기간산업화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내수 파급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 부품소재 및 신기술 관련 벤처 기업 등의 육성이 절실하다.**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세제 지원과 전력 사용 비용 등에서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신기술 유망 벤처 및 중소기업의 창업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 감면, 인허가 제도의 대폭 간소화 등이 요구된다. **셋째 남북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여 협소한 내수시장 규모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남북간 경제 발전 정도, 산업 구조 등을 감안하여 상호간 win-win이 될 수 있는 협력 모델 정립이 시급하다. **넷째 저출산 사회 도래, 노동력의 조기 퇴장 등에 따르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임금피크제를 통한 노령 인구 활용, 여성 경제 활동 참여 증대, 고급 인력 중심의 외국인 근로자 수급 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본 시장을 보다 활성화시켜 시중 부동 자금이 생산적인 투자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표류중인 자본시장 통합법이 조속히 통과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 중진국 함정에 빠진 한국 경제 >

### 한국의 경제 발전

- 한국 1인당 국민소득순위 : 70년 세계 110위에서 2004년 47위
-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 도래 (07~08년경 2만달러대 진입 예상)

### 아너스 클럽 국가들의 2만⇒3만 달러대 경제 성장 분석

- 평균 10.8년, 성장률 3.3%의 실적 기록
- 특히 강대국은 내수 부문이 주된 성장 동력으로 작용

### 한국과 아너스 클럽과의 경제 구조 비교

- 한국 경제의 성장률 (2003~06년 연평균 4.3%)은 아너스 클럽의 2만달러 진입직전 5년 성장률 3.8%보다 높음
- 그러나 아너스 클럽과 한국 간 소득 격차 확대 지속
  - 20,415달러 (1998년) ⇒ 25,396달러 (2004년)
- 구조적 측면에서 과도한 수출 의존적, 내수 부문 취약성이 심각

시사점

### 한국 경제의 중진국 함정 탈출 시급

- 10년내 아너스클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 ⇒ 현 4%대 초반의 성장 잠재력을 6%대로 제고시켜야 가능
- 2%p의 추가 성장은 강대국 모델과 같은 내수 부문에서 견인되어야 함

정책과제

### 내수 중심의 경제 발전 모델로 전환

- ❖ 향후 경제 발전 전략 방향 : 내수 부문 집중 육성
  - 거시정책 : 투자⇒고용⇒소비⇒투자의 경제순환 구조 정착
  - 산업정책 : 고용 효과가 큰 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 ❖ 단기 대응 방안
  - 가계건전성 확보, 기업투자 활성화 등으로 경기 침체 방지
- ❖ 중장기 정책 과제
  - 지속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산업의 조기 발굴 및 육성
  - 내수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및 벤처기업 활성화
  - 남북 경협 활성화를 통한 내수 시장 규모 확대
  - 노동력 부족 문제를 대비한 중장기 노동 수급 정책 구축
  - 자본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금과 투자의 연결성 강화

□ 중진국 함정에 빠진 한국 경제

- 아너스 클럽 2만 달러 시기의 비교 분석과 정책과제

1. 한국 경제의 현실

(1) 한국의 경제 발전

○ 한국 경제는 효율적인 경제 발전 전략으로 지난 90년대까지 세계 경제보다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였고, 이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도 1970년 110위에서 2004년 현재 47위를 기록하고 있음

- 한국 경제의 성장 속도는 70년대 8.3%, 80년대 7.7%, 90년대 6.3%, 2000년대 5.2%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 경제와의 성장 속도 차이도 80년대까지 4%p대를 유지했으나 2000년대에는 2.2%p로 크게 낮아짐

< 한국과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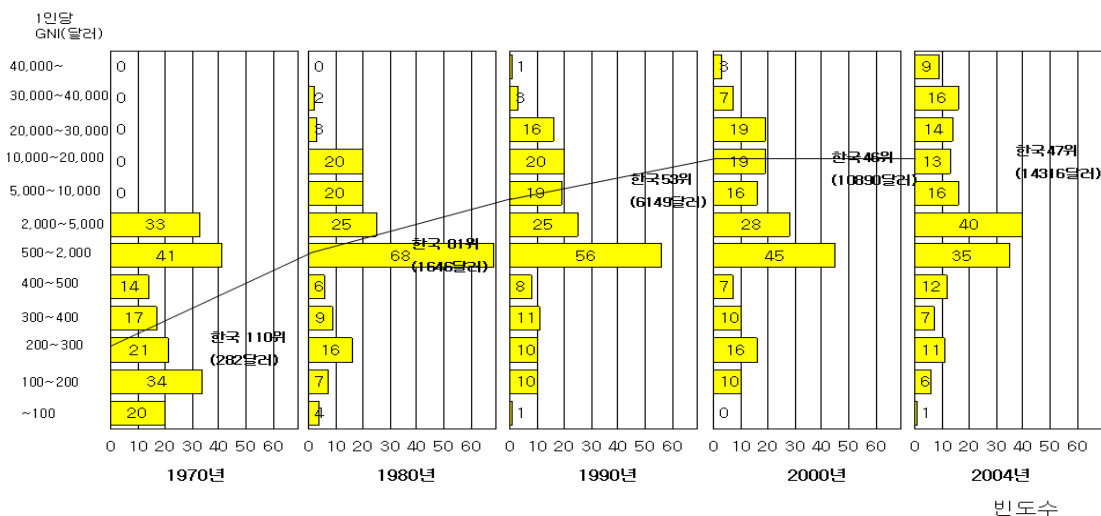
(%, %p)

	1971~79년	1980~89년	1990~99년	2000~05년
한국	8.3	7.7	6.3	5.2
세계	4.0	3.0	2.2	3.0
차이	4.3	4.7	4.1	2.2

자료: 한국은행, UN.

-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70년 세계 110위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 현재 47위까지 상승함 (다만 1990년 이후로 순위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음)

< 시대별 세계 국가들의 국민소득 분포 및 한국의 순위 >



자료 : UN 통계 자료 기준.

주 : 1) 막대 그래프 안의 수치는 국가수를 의미함

2) 3만 달러 이상 국가에는 비 OECD 국가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



○ 2006년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18,372달러, 2007년에는 2만 달러를 상회하거나 근접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한국 경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70년 254달러에 불과하였으나, 1977년 소득 1,000달러 시대에 진입하였고, 1995년에는 1만 달러대를 달성
- 이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 7,355달러로 하락한 뒤 점차 상승하여, 2006년 18,372달러에 이르고 있음
- 한편 향후 환율과 경제 여건에 큰 변화가 없을 경우, 2007년 늦어도 2008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대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의 1인당 GNI 추이 >

	1970	1977	1980	1990	1995	2000	2002	2004	2006
1인당GNI (달러)	254	1,034	1,645	6,147	11,432	10,841	11,499	14,206	18,372
1인당GNI (만원)	9	50	100	435	881	1,226	1,439	1,626	1,756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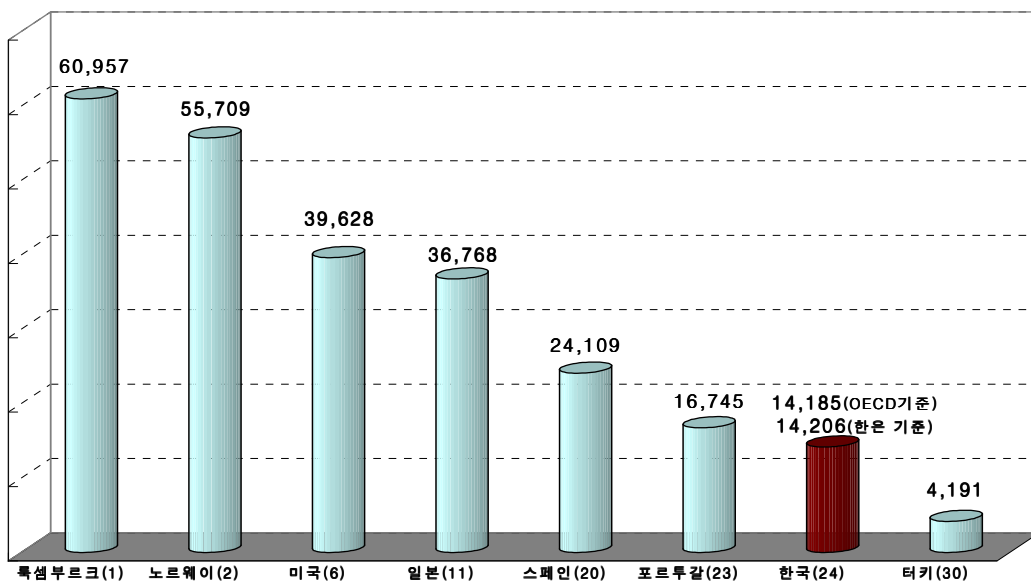
< 1인당 국민소득 >

- 1인당 국민소득(GNI) :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연간의 명목 국민총소득을 연앙인구(7월 1일)로 나누어 구하며 국제비교를 위해 미 달러화(연평균 환율 적용)로 표시
- 명목 국민총소득(Nominal Gross National Income) : 1인당 국민소득, 국가경제규모 등을 파악하는 데 이용되는 지표
  -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명목총소득을 의미하므로 명목 GDP에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하여 산출 (중전의 명목 GNP)

○ OECD 30개 회원국간 소득 격차가 커 회원국이 선진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순위는 24위에 불과

- OECD 30개국의 1인당 국민소득 국가간 평균은 2만 9,936달러
-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고 3만 달러에 진입하기 이전 국면에 위치한 국가로는 스페인 (24,109달러), 그리스 (23,643달러), 뉴질랜드 (22,646달러)의 3개국임
- 한국의 경우처럼 국민소득 1만 달러 대에 위치해 있는 국가로는 포르투갈 (16,745달러) 등이 있음
-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들로는 체코 (9,991달러), 헝가리 (9,513달러), 슬로바키아 (7,837달러), 멕시코 (6,467달러), 폴란드 (6,312달러), 터키 (4,191달러) 등임

< OECD 주요 국가의 1인당 GNI (2004년 기준) >



자료 : OECD, 한국은행.

- 주 : 1) 한국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상의 1인당 GNI 기준
- 2) 다른 국가들은 OECD Statistics상 2004년 명목시장가격 GNI를 총인구로 나눔
- 3) 한국의 1인당 GNI의 경우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상의 수치와 OECD의 Statistics 과 Factbook을 이용해서 추정된 수치와 다소 차이가 존재함 (2004년 기준 한국은행이 공식 발표하는 1인당 GNI는 14,206달러이고, OECD 자료를 이용해 계산된 값은 14,185달러로 큰 차이는 없음).

(2) 선진국의 정의

○ (UN의 정의) 일정 수준의 1인당 GDP(GNI)를 충족하면서 산업구조, 기대수명, 문맹률, 교육, 생활 수준, 소득 불평등 정도를 감안하여 선진국으로 분류

- 그러나 1인당 GDP 기준은 각국 물가수준의 차이로 인한 특정 통화(예를 들면 달러화)의 구매력 차이로 후생수준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음
  - 또한 소득분배의 불균형이 심할 경우 1인당 GDP는 해당국 사람들의 평균적인 소득수준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음
  - 특히 1인당 GDP는 건강 상태, 삶의 질 등의 수준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후생수준을 정확히 반영하지는 못함
  -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UN은 기대수명, 문맹률, 교육, 생활수준 등을 반영하는 HDI (Human Development Index)를 보조 지표로 사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원유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걸프지역 연안 국가, 바레인이나 트리니다드 토바고 등과 같이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국가 등은 비록 1인당 GDP는 높으나 선진국으로 분류되지는 않음
-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2004년 기준 OECD 30개국의 1인당 국민소득 평균 약 3만 달러(2만 9,936달러) 이상 국가들을 선진국으로 간주하였는데, 이는 우연히도 아너스 클럽(Honor's Club) 국가들의 기준과 동일

< 아너스 클럽(Honor's Club) >

- 2004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국가로는 소득 순으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위스, 덴마크, 아이슬란드, 미국, 스웨덴, 아일랜드, 네덜란드, 영국, 일본, 핀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의 18개국임
- 단 이탈리아는 2004년 기준 국민소득이 29,793달러로 3만 달러에 근접하고 있어, 현재 3만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아너스 클럽 국가로 간주

## 2. 아너스 클럽 국가들의 2만 달러대 경제 성장 분석

### (1) 분석의 목적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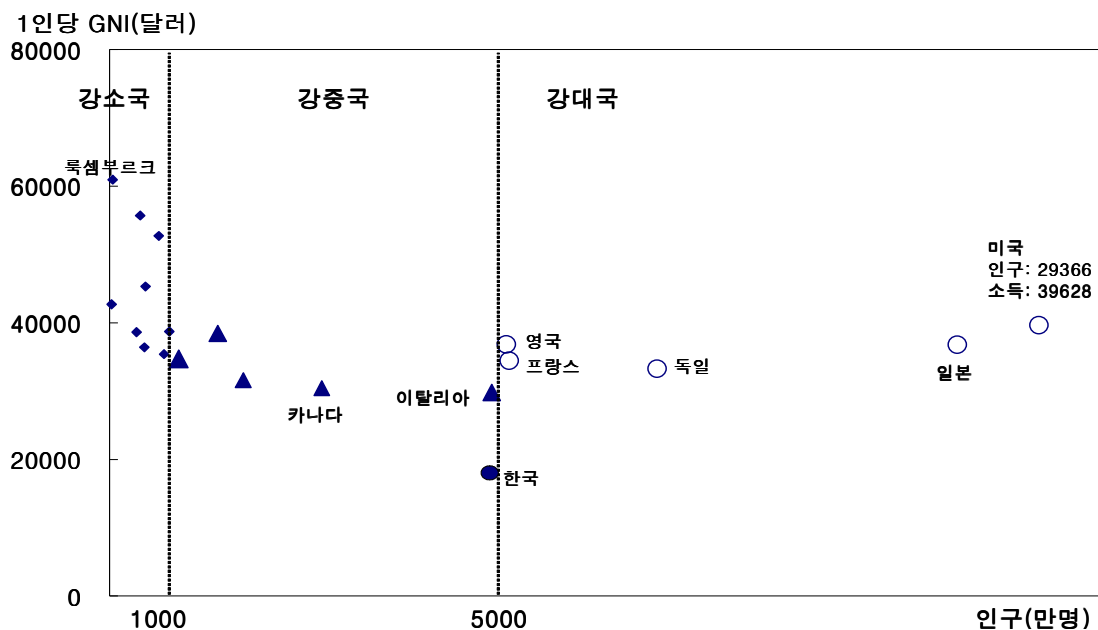
#### ○ 분석 목적

- 과거 국민소득 2만 달러대의 선진국들과 최근 한국의 경제 성장 패턴을 비교하여, 향후 경제 발전 모델을 모색하기 위함

#### ○ 분석 대상 국가

- 아너스 클럽 국가들을 인구 규모 기준으로 1,000만명 미만 국가군, 1,000만~5,000만 명 미만 국가군, 5,000만 명 이상의 3집단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명칭에 임의적으로 강소국, 강중국, 강대국을 사용함
- 다만 이탈리아는 2004년 기준으로 인구 규모가 5,000만 명을 다소 상회하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미치지 못하여 강중국으로 분류함

< 아너스 클럽 국가들의 1인당 국민소득과 인구 규모 >



자료 : OECD.

○ 분석 방법

- 경제 성장 속도 비교
  - 한국의 2003~2006년 경제성장률과 아너스 클럽 국가들의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진입 직전 5개년도의 연평균 성장률을 비교
- 경제 성장 구조 비교
  - 수요 부문별 비중 비교 : 한국의 2006년 비중과 아너스 클럽 국가들의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진입 년도의 비중 비교
  - 수요 부문별 증가율 비교 : 한국의 2003~06년 각 수요 부문별 증가율과 아너스 클럽 국가들의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대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
  - 강대국과의 성장 구조 비교 : 한국의 현 인구 규모가 5,000만 명에 근접하고 있고, 통일 후 7,000만 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수요 부문별 비중 및 증가율에 대해 한국과 강대국들과의 비교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 선진국들의 2만 달러대 경제 성장 속도

○ 아너스 클럽 (Honor's Club)의 국민소득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1만~2만 달러 달성기간은 약 10.7년, 이후 3만 달러 달성에 소요되는 기간은 10.8년으로 나타남

- 2만 달러대에서 3만 달러를 가장 빠르게 달성한 국가로는 룩셈부르크 (4년), 일본(5년), 스위스(5년) 등을 들 수 있음
- 반면 독일(18년), 핀란드(16년), 캐나다(16년) 등의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남
  - ※ 한국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에 진입한 지 약 13~14년여 만에 2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호주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 주요 선진국들의 1인당 국민소득 달성 기간 비교 >

	1만~2만 달러 기간	2만~3만 달러 기간	1만 달러 진입시점	2만 달러 진입시점	3만 달러 진입시점
호주	17	10	1979	1995	2004
오스트리아	11	14	1980	1990	2003
벨기에	13	14	1978	1990	2003
캐나다	10	16	1980	1989	2004
덴마크	10	9	1978	1987	1995
핀란드	9	16	1980	1988	2003
프랑스	12	14	1979	1990	2003
독일	10	18	1978	1987	2004
아이슬란드	10	13	1978	1987	1999
아일랜드	8	7	1990	1997	2003
이탈리아	11	10	1986	1996	2005(E)
일본	5	5	1984	1988	1992
룩셈부르크	10	4	1978	1987	1990
네덜란드	14	13	1978	1991	2003
노르웨이	10	9	1978	1987	1995
스웨덴	12	10	1976	1987	1996
스위스	11	5	1976	1986	1990
영국	10	8	1987	1996	2003
미국	11	10	1978	1988	1997
아너스클럽	10.7	10.8	-	-	-
한국	13년 이상	-	1995	2007~08(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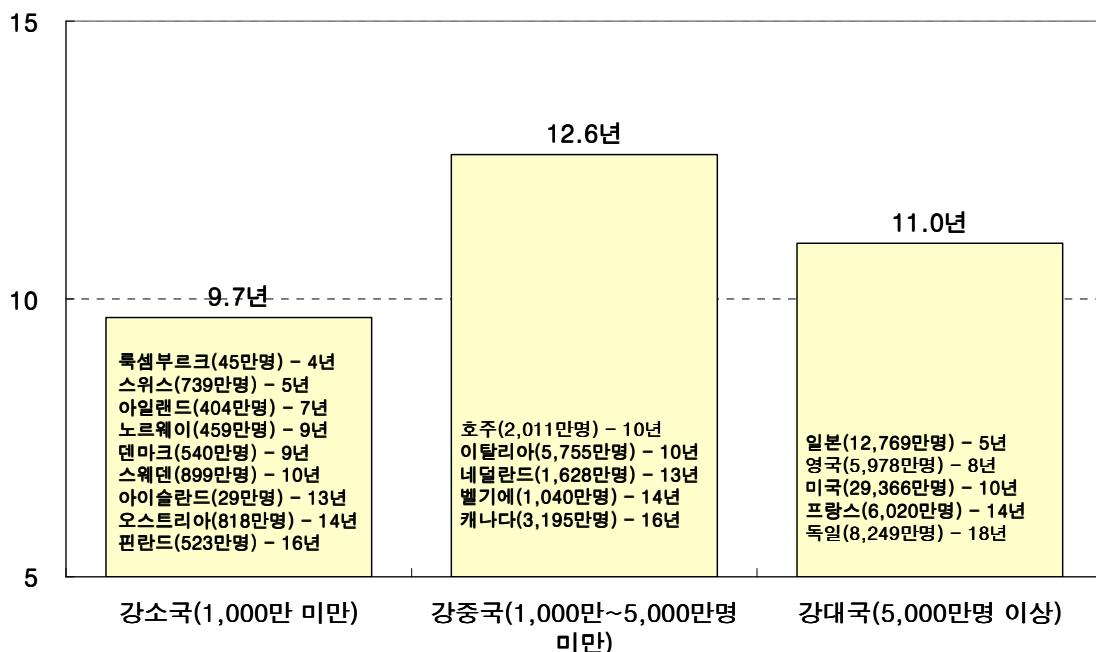
자료 : OECD, 한국은행.

주 : 한국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상의 1인당 GNI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OECD Statistics상의 Gross National Income at market prices 항목을 Total population으로 나눈 수치를 근거로 계산됨.

○ 아너스 클럽 국가들의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대의 경제 성장 속도는 대체적으로 인구 규모가 작은 국가가 비교적 빠른 것으로 나타남

- 強小국 (2004년 기준 인구 규모 1,000만 명 미만) : 룩셈부르크(45만 명), 스위스(739만 명), 아일랜드(404만 명) 등 9개국 이 해당되며, 이들 국가들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진입하고부터 3만 달러를 달성한 기간은 9.7년임
- 強中국 (1,000만~5,000만 명 미만) : 호주(2,011만 명), 네덜란드(1,628만 명) 등으로 2만 달러에 진입하고부터 3만 달러를 달성한 기간은 12.6년임  
·단 이탈리아는 2004년 기준으로 인구 규모가 5,000만 명을 다소 상회하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미치지 못하여 강중국으로 분류함
- 強大국 (1억 명 이상) : 영국(5,978만 명), 일본(1억 2,769만 명), 미국(2억 9,366만 명)의 5개국으로 평균 달성 기간은 11.0년임

< 아너스클럽 국가들의 인구 규모별 1인당 국민소득 2만~3만 달러 기간 >



자료 : OECD.

주 : 1) 2004년 인구 규모 기준으로 분류함

2) 괄호 안의 수치는 인구 (만 명)이며, - 이하는 2만 달러 진입 후 3만 달러 달성 시까지 소요된 기간(년)을 의미함.

(3) 선진국들의 2만 달러대 성장 구조

① 강소국의 국민소득 2만 달러대의 성장 구조

○ 강소국들의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대의 경제 성장은 주로 수출 부문에 의해 견인되었던 것으로 판단

-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9%
- 내수 부문 : 강소국들의 경우 내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만 달러 돌파 시점 101.7%에서 3만 달러 시기에는 97.6%로 하락  
·부문별로는 총소비가 74.5%에서 71.4%로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으며, 총자본도 27.2%에서 26.3%로 소폭 감소함  
·그러나 특히 고정자본의 연평균 증가율은 3.9%로 경제성장률 3.9%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수출 부문 : 수출의존도 (GDP 대비 재화와 서비스 수출 비중)는 2만 달러 돌파 시점 43.6%에서 3만 달러 시기에는 54.1%로 증가  
·재화와 서비스 수출 증가율은 6.6%로 다른 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기록함

< 강소국의 국민소득 2만 달러대의 성장 패턴 >

	GDP 대비 비중		연평균 증가율
	2만 달러 진입시점	3만 달러 진입시점	2만 달러대
내수	101.7%	97.6%	
총소비	74.5%	71.4%	2.8%
가계소비	52.7%	49.7%	2.5%
총자본	27.2%	26.3%	4.2%
고정자본	21.4%	19.9%	3.9%
재화와 서비스 수출	43.6%	54.1%	6.6%
GDP	-	-	3.9%

자료 : OECD.

주 : GDP 대비 비중은 실질 자료 기준임.



② 강중국의 국민소득 2만 달러대의 성장 패턴

○ 강중국들의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대의 경제 성장은 내수와 수출의 동반 성장에 의해 이루어짐

- 강중국들의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9%
- 내수 부문 : 강중국들의 경우 내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만 달러 돌파 시점 98.0%에서 3만 달러 시기에는 99.2%로 증가함
  - 부문별로는 총소비가 77.5%에서 76.9%로 하락하였으나, 가계소비는 55.6%에서 55.5%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총자본은 20.5%에서 22.3%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3.5%로 성장률 2.9%를 크게 상회함
- 수출 부문 : 수출의존도 (GDP 대비 재화와 서비스 수출 비중)는 2만 달러 돌파 시점 37.2%에서 3만 달러 시기에는 49.0%로 증가
  - 이는 강소국에 비해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연평균 증가율도 4.5%로 경제성장률보다 높기는 하지만, 강소국들의 수출 증가율인 6.6%보다는 낮은 수준임

< 강중국의 국민소득 2만 달러대의 성장 패턴 >

	GDP 대비 비중		연평균 증가율 2만 달러대
	2만 달러 진입시점	3만 달러 진입시점	
내수	98.0%	99.2%	
총소비	77.5%	76.9%	2.4%
가계소비	55.6%	55.5%	2.5%
총자본	20.5%	22.3%	3.5%
고정자본	20.5%	21.9%	3.4%
재화와 서비스 수출	37.2%	49.0%	4.5%
GDP	-	-	2.9%

자료 : OECD.

주 : GDP 대비 비중은 실질 자료 기준임.

③ 강대국의 국민소득 2만 달러대의 성장 패턴

○ 강대국들의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대의 경제 성장은 주로 소비와 투자의 내수 부문 중심으로 견인됨

- 강대국들의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6%
- 내수 부문 : 강대국들의 경우 내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만 달러 돌파 시점 100.9%에서 3만 달러 시기에는 100.0%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총소비는 80.6%에서 79.3%로 하락하였으나, 가계소비는 같은 기간 59.7%에서 59.8%로 비슷한 비중을 유지함
  - 한편 고정자본은 19.9%에서 20.4%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도 4.2%로 강소국들과 강대국들에 비해 빠른 속도를 나타냄
- 수출 부문 : 수출의존도 (GDP 대비 재화와 서비스 수출 비중)는 2만 달러 돌파 시점 15.4%에서 3만 달러 시기에 23.2%로 확대되었으나 강소국과 강중국들과 비교할 경우 낮은 수준을 기록함

< 강대국의 국민소득 2만 달러대의 성장 패턴 >

	GDP 대비 비중		연평균 증가율 2만 달러대
	2만 달러 진입시점	3만 달러 진입시점	
내수	100.9%	100.0%	
총소비	80.6%	79.3%	2.7%
가계소비	59.7%	59.8%	3.0%
총자본	20.2%	20.6%	4.2%
고정자본	19.9%	20.4%	4.2%
재화와 서비스 수출	15.4%	23.2%	6.6%
GDP	-	-	2.6%

자료 : OECD.

주 : GDP 대비 비중은 실질 자료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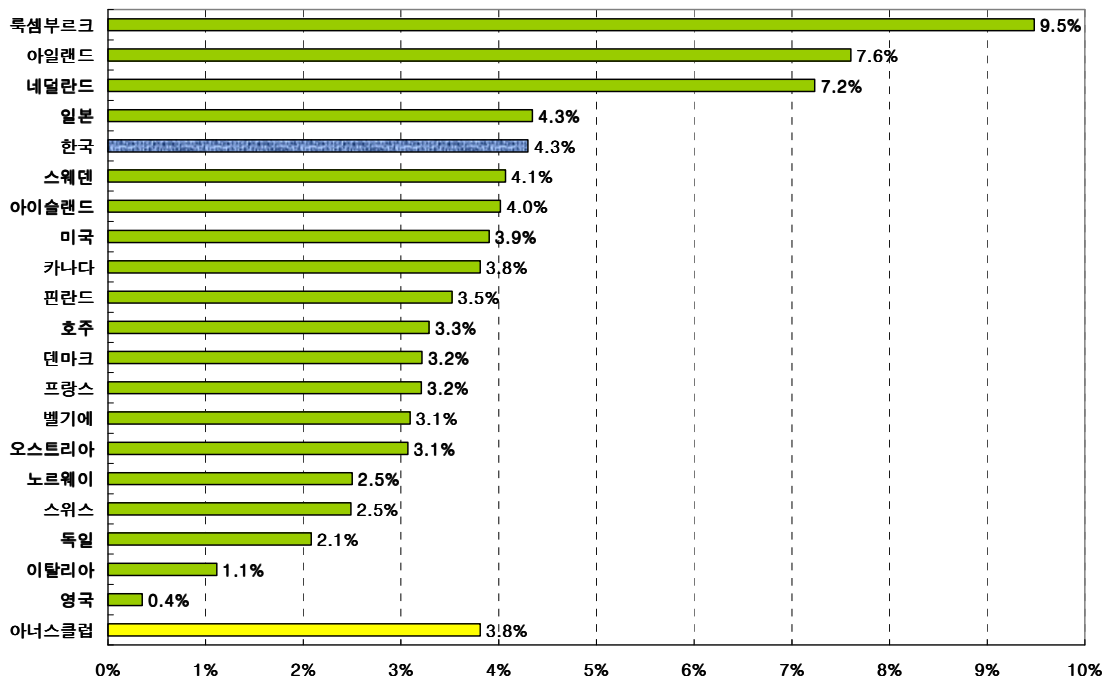
### 3. 한국과 아너스 클럽 국가와의 경제 구조 비교

#### (1) 경제 성장 속도 비교

○ 최근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선진국들의 2만 달러 진입 시점의 경제 성장 속도보다는 높은 수준임

- 국민소득 2만 달러 진입 직전인 우리나라의 2003~06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3%로 아너스 클럽 국가들의 국민소득 2만 달러 진입 직전 5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8% (2만 달러대 성장률 3.3%)보다 0.5%p 높음
- 아너스 클럽 국가들중 국민소득 2만 달러 직전 평균 성장률이 한국보다 높았던 국가는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3개국뿐임
- 이러한 사실에만 근거할 경우 최근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함정에 빠져 있다거나 경제 조로화가 진행중이라는 주장은 일견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아너스 클럽 국가들과 한국의 국민소득 2만 달러 진입 직전 평균 성장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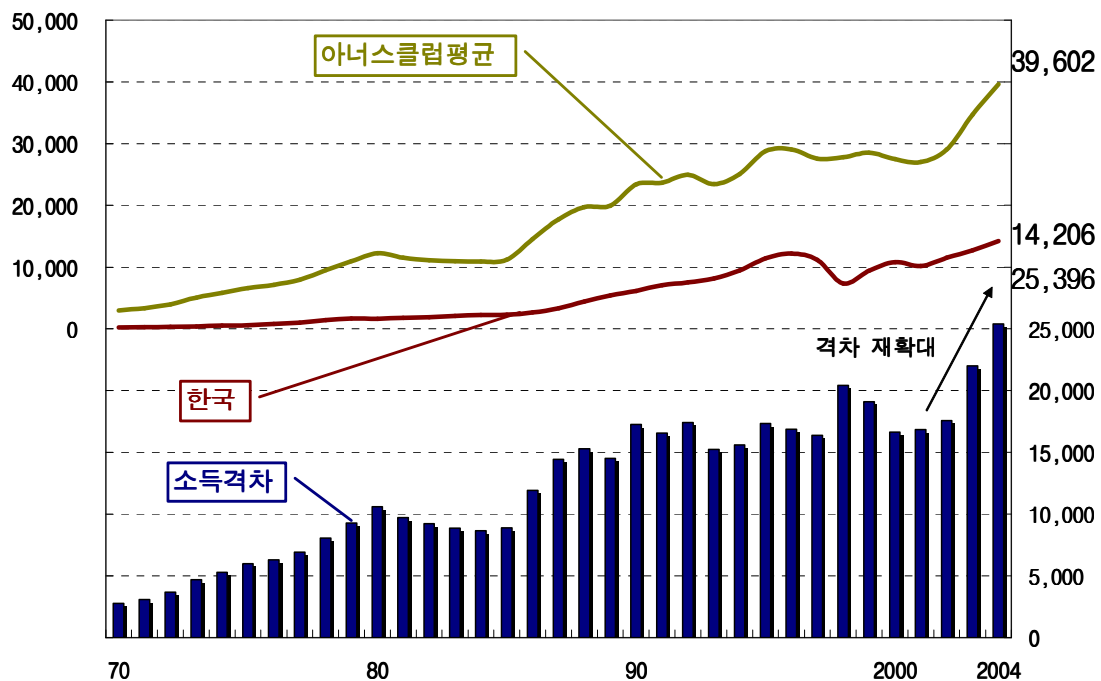
자료 : OECD, 한국은행.

주 : 아너스 클럽 국가들은 1인당 GNI 2만 달러 진입 직전 5개년도의 경제성장률 평균치이며, 한국은 2003~06년의 4개년도 성장률 평균치임.

○ 그러나 우리나라와 아너스 클럽 국가와의 소득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이는 우리나라가 중후진국이 선진국의 경제 발전 단계를 따라 잡는 소득의 수렴 (Convergence of Per Capita Income 또는 Catch Up) 가설에서 벗어남을 의미함
- 2004년 현재 아너스 클럽 국가들의 평균 1인당 국민소득은 39,602달러로 우리나라의 14,206달러와 25,396달러의 격차를 나타냄
- 특히 외환위기 이후 소득 격차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인 2002년 이후 다시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음
- 아너스 클럽국가들과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차이는 1998년 20,415달러에서 2000년에 16,641달러로 축소되었으나, 이후 다시 격차가 확대되어 2004년에는 25,396달러에 이르고 있음

< 아너스 클럽과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추이 >



자료 : OECD, 한국은행.

(2) 경제 성장 구조 비교

○ 특히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강대국들의 2만 달러대의 경제 성장 패턴과 비교할 경우, 한국 경제의 내수 부문이 매우 취약하다고 평가됨

- 한국의 현 인구 규모가 5,000만 명 수준이고 통일 후 7,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강중국보다는 강대국들과의 비교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한국의 2006년 기준 재화와 서비스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8%로 강대국들의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점의 비중과 3만 달러 시점의 비중인 15.4% 및 23.2%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증가율로도 2003~06년 재화와 서비스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4.0%로 강대국들의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대의 증가율 6.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한국의 2006년 기준 GDP 대비 내수(총소비+ 총자본형성) 비중은 90.0%로 강대국들의 100.9%와 약 10%p 이상의 격차를 보임
  - 특히 우리나라의 최근 소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계 소비의 경우 GDP의 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소비 증가 속도도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총자본형성과 고정자본형성의 경우 2006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비중은 약 28%대로 강대국들의 20%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총자본형성과 고정자본형성의 증가율은 모두 강대국들의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대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강대국과 한국의 주요 수요 부문별 비교 >

			총소비		총자본형성		재화와서비스 수출
				가계소비		고정자본	
GDP 대비 비중	한국	2006년	61.8%	48.5%	28.2%	28.3%	57.8%
	강대국	2만 달러 돌파시점	80.6%	59.7%	20.2%	19.9%	15.4%
	강대국	3만 달러 돌파시점	79.3%	59.8%	20.6%	20.4%	23.2%
연평균 증가율	한국	2003 ~ 06년	2.1%	1.6%	3.1%	2.9%	14.0%
	강대국	2만 달러대	2.7%	3.0%	4.2%	4.2%	6.6%

자료 : OECD, 한국은행. 주 : GDP 대비 비중은 실질 자료 기준임.

#### 4. 시사점과 정책 과제

##### (1) 시사점

- 최근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로 추정되는 4% 내외의 성장률을 지속할 경우 10년 내 아너스 클럽 진입은 불가능하며, 특히 아너스 클럽 평균 소득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영원한 중진국 함정 (Non Convergency Trap)에서 벗어나지 못 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 경제가 같은 기간 5%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경우 2017년 최대 44,800 달러에 이를 수 있으나 아너스 클럽 가입은 불가능함
    - 이는 향후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 현재의 아너스 클럽 국가들도 경제 성장이 지속되어, 10년 뒤 아너스 클럽 기준은 현재의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훨씬 상회하여 약 49,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임
  - 과거 20세기까지 한국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여 선진국 경제 발전 단계를 따라잡는 소득 수렴 (Convergence of Per Capita Income) 가설에서 이탈 하지 않았음
    - 그러나 최근에 들어 선진국과의 소득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비수렴 함정 (Non Convergency Trap)에 빠져, 중진국 위치가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한국 경제가 10년 내 아너스 클럽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6% 대로 높아져야 가능함

< 아너스 클럽과 한국의 성장률에 따르는 1인당 GNI 전망 >

		2007 (E)	2010 (E)	2015 (E)	2017 (E)
아너스 클럽	평균	44,400	49,800	60,300	65,100
	하한	33,700	37,700	45,700	49,300
한국	4% 성장시	20,000	24,700	35,400	40,800
	5% 성장시		25,500	38,100	44,800
	6% 성장시		26,200	41,000	49,100
	7% 성장시		26,900	44,100	53,800

< 아너스 클럽과 한국의 2017년 1인당 GNI 추정시 가정 >

- 기본 가정
  - 본 추정에서는 향후 10년 동안 한국과 아너스 클럽과의 물가 상승률 및 인구 변화가 동일하다고 가정함
  - 장기적으로 GNI와 GDP가 일치한다는 가정 하에서, 1인당 GNI 증가율 = 경제성장률(실질 GDP 증가율) + 물가 상승률 + 자국통화절상률 - 인구 증가율임
- 아너스 클럽
  - 아너스 클럽의 향후 10년간 경제성장률은 1998~04년 실적치인 연평균 2.2%로 가정
  - 아너스 클럽의 자국통화 절상률은 대체로 유로화 통용 국가들임을 고려하여 1998~04년의 유로화 절상률 1.7%를 가정
- 한국
  - 원화 환율 절상률은 1998~04년의 실적치인 연평균 3.4%를 가정
- 기준 시점인 2007년 아너스 클럽의 1인당 GNI는 위 가정들을 토대로 한 추정치임

○ 따라서 현재 4%대 초반에 있는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6%대로 높이기 위해서는, 강대국들의 국민소득 2만 달러대의 내수 중심 성장 구조를 고려하여, 지금과 같은 수출 주도가 아닌 내수 부문 육성을 통해 달성해야 할 것임

- 한국 경제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강대국 모델로 가기 위해서는 경제 발전 모델이 내수 중심 구조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 경제는 수출의존적 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 수출 산업의 고도화가 미약한 상황에서 수출 주도형 경제 발전 전략이 지속될 경우 수출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내수 부문으로 파급되지 않아 경제 불균형성(경기양극화) 확대는 물론 성장률 제고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음
  - 우리나라 수출의 고용 창출 효과는 1995년 26.2명에서 2003년에 12.7명으로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2003년의 소비의 고용 창출 효과 20.2명과 투자의 15.1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2) 단기 대응 방안 및 중장기 정책 과제

- 정부는 단기적으로 지나친 경기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의 경기 안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내수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력해야 할 것임
- (단기 대응 방안) 만약 현 정부가 지나친 경기 하락을 방치할 경우 다음 정권에서의 많은 경기 진작 비용 급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경기 안정책이 필요함
  - 기업 투자 활성화 : 내수 부문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투자 관련 규제 완화,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시급함
    - 이러한 기업 투자 확대를 통해 고용 창출, 가계의 근로 소득 증대, 소비 회복으로 이어지는 내수 부문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을 것임
  - 가계 건전성 확보 : 외환위기와 2002년의 소비 버블 붕괴의 경험상 가계의 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경우 장기간 소비 침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근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됨
- (중장기 정책 과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 빠른 시간 내에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내수 부문을 집중 육성하여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할 것임
  - 지속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성장 산업의 조기 발굴
    - 시장 형성 초기 단계에 있거나 잠재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IT 이후의 신산업 부문에 대해서, 집중적인 R&D 투자와 상업화 전략을 통해 미래 국가 기간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함



- 내수 파급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 부품소재 및 신기술 관련 벤처 기업 활성화
  -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 세제 지원과 전력 사용 비용 등에서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임
  - 부품소재 및 신기술 관련 벤처 기업의 창업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 감면, 인허가 제도의 대폭 간소화 등이 필요함
  
- 남북 경험 활성화를 통해 협소한 내수 시장의 확대 도모
  - 우선 남북간 경제적 협력의 틀을 공고이하여 국내 협소한 내수 시장 규모를 확대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존재함
  - 남북간 경제 발전 정도, 산업 구조 등을 감안하여 상호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경제 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저출산 사회 도래, 노동력의 조기 퇴장에 따르는 노동력 부족 문제 극복
  - 향후 예상되는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비하여, 임금피크제를 통한 노령 인구 활용, 여성 경제활동참여 증대, 외국인 근로자의 체계적 관리 등과 같은 구체적인 중장기 노동력 수급 계획 수립이 요구됨
  
- 자본 시장 활성화를 통해 자금과 투자의 연결성을 강화
  - 현재 표류중인 자본시장 통합법의 조속한 통과, 채권 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선진국형 자본 시장이 조속히 조성되어야 할 것임

주원 연구위원 (3669-4030, juwon@hri.co.kr)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세 가속

○ 2월 실업률은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여 취업자가 1.2% 증가하고 실업자가 9.6% 감소함에 따라, 작년 2월의 4.1%보다 0.4%p 하락한 3.7%를 기록

- 전월 대비로는 취업자수가 1월 약 2,273만 명에서 2월에 2,267만 명으로 6만 여 명이 감소하고, 실업자수는 85만 명에서 86만 명으로 1만 여명이 증가함에 따라 같은 기간 실업률은 3.6%에서 3.7%로 악화됨
- 한편 주당근로 36시간 이상 취업자수 감소(전년동월비 -0.9%), 제조업 취업자수 감소(전년동월비 -1.1%), 구직단념자 급증(2월중 14.1만 명으로 2005년 8월 14.8만 명 이후 최대치를 기록) 등 고용 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지속중인 것으로 나타남
- 올해 상반기까지 경기 하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고용 시장도 경기에 후행하는 성격이 높기 때문에 연중 고용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5	2006					2007			
			연간	1/4	2/4	3/4	4/4	12월	1월	2월	
경기	경제성장률	4.0	5.0	6.1(1.2)	5.3(0.8)	4.8(1.1)	4.0(0.8)	-	-	-	
	수요	소비재판매	4.1	4.7	5.3	6.1	2.9	4.5	5.3	3.1	-
		설비투자추계	6.3	7.4	6.2	6.7	11.8	5.1	2.3	16.0	-
		건설수주	7.3	9.0	-8.5	-14.7	37.1	27.1	29.8	9.7	-
		수출	12.0	14.4	10.6	16.9	16.3	13.8	12.3	20.9	11.3
공급	산업생산	6.3	10.1	12.8	11.5	11.3	5.2	3.0	7.4	-	
	취업자수(만명)	2,286	2,315	2,258	2,341	2,331	2,330	2,299	2,273	<b>2,267</b>	
	실업률(%)	3.7	3.5	3.9	3.4	3.3	3.2	3.3	3.6	<b>3.7</b>	
	수입	16.4	18.4	19.7	20.4	21.1	13.0	13.8	20.5	7.5	
대외 거래	경상수지(억\$)	166	61	-11	7	4	61	1	-5	-	
	무역수지(억\$)	232	161	13	48	25	75	13	3	12	
물가	소비자물가	2.8	2.2	2.1	2.2	2.5	2.1	2.1	1.7	2.2	
	생활물가	4.1	3.1	3.1	3.1	3.5	2.6	2.6	1.9	2.4	

주 : 경제성장률의 (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임.

□ 금융 동향 :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정세

○ (해외 금융 시장) 글로벌 달러화 약세

- **금리**: 미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기관의 부실 우려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크게 하락(4.49%)하기도 하였으나 생산자물가의 예상치 상회 및 주식시장의 빠른 안정 등으로 다시 반등 (국채 10년물 : 4.59 → 4.54%)
- **환율**: 미 경상수지 적자의 예상치 상회 및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등으로 글로벌 달러화 약세 (\$/€ : 1.3115→1.3238, ¥/\$ : 118.32→117.57)

○ (국내 금융 시장) 주가의 조정 장세 지속

- **주가**: 주 초반 글로벌 증시의 호조로 1,441p까지 상승하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영향으로 1,407p까지 하락하기도 하였으나 투자심리가 다시 안정되면서 반등하여 전주말 대비 강보합 시현 (1,423.6→1,427.9)
- **금리**: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기관의 부실 등에 의한 국내외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안전자산(국채)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전주말 대비 소폭 하락 (국고채 3년 수익률, 4.83→4.79%)
- **환율**: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상수지 적자폭의 예상치 상회 및 수출업체의 달러화 환전 수요 등에 따른 영향으로 전주말 대비 소폭 하락 (945.9→944.5)

○ (전망) 금융시장 불안 요소 상존으로 주가의 조정 지속 전망

< 주요 금융 지표 >

		2005		2006				2007	
		3/4	4/4	1/4	2/4	3/4	4/4	3.9.	3.16. <sup>1)</sup>
국내	거래소 주가	1,221.0	1,379.4	1,359.6	1,295.2	1,371.4	1,434.5	1,423.6	<b>1,427.9</b>
	국고채3년(%)	4.60	5.08	4.93	4.92	4.57	4.92	4.83	<b>4.79</b>
	원/달러	1,041.1	1,011.6	971.6	948.9	946.2	929.8	945.9	<b>944.8</b>
해외	DOW	10,569	10,718	11,109	11,150	11,679	12,463	12,319	<b>12,160</b>
	Nikkei	13,574	16,111	17,060	15,505	16,128	17,226	17,292	<b>16,860</b>
	미국채10년(%)	4.32	4.39	4.85	5.14	4.63	4.70	4.59	<b>4.54</b>
	일국채10년(%)	1.48	1.48	1.78	1.93	1.68	1.69	1.62	<b>1.59</b>
	달러/유로	1.2026	1.1849	1.2118	1.2790	1.2674	1.3199	1.3115	<b>1.3238</b>
	엔/달러	113.51	117.75	117.78	114.42	118.18	119.07	118.32	<b>117.57</b>
	두바이(\$/배럴)	56.32	53.19	59.16	67.17	57.33	56.71	57.98	<b>58.18</b>

주 : 1) 해외지표는 전일(3..15.) 기준